

이덕일의 '역사의 창'



만리장성 동쪽 끝이 북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의 여름 정기답사로 실크로드를 다녀왔다. 청해(靑海)성 서녕(西寧)에서 버스를 타고 서북쪽으로 초원지대를 달려서 갑숙(甘肅)성 돈황(敦煌)까지 갔다가 동남쪽으로 돌아서 갑숙성 난주(蘭州)까지 내려오는 여정이였다.

돈황에서 난주까지 가는 길이 바로 옛 중국의 수도 장안(長安 : 서안)으로 통하는 유명한 하서주랑(河西走廊)이다. 하서(河西)는 황하 서쪽이란 뜻이고 주랑은 긴 화랑이란 뜻인데, 남쪽으로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기린산맥(祁連山脈)과 북쪽으로는 여러 산과 사막이 이어지는 중간의 평지가 약 9백km에 달한다. 하서주랑은 때로는 동서문명이라고 하는 실크로드지만 때로는 흉노 같은 북방 기마민족의 침공로가 되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은 살핀다는 천고마비(天高馬肥)를 중국에서는 추고마비(秋高馬肥)라고 한다. 우리는 천고마비를 독서의 계절이란 뜻으로 쓰지만 중국에서는 '송사'(宋史) "이강(李綱)열전"에 "(저들이) 추고마비에 다시 와서 우리 강역을 어지럽히지 않으리라고 어찌 알겠

습니까?"라고 말한 것처럼 북방 기마민족이 살던 말을 타고 농경민족인 한족(漢族)의 곡식을 빼앗으러 오는 시기라는 뜻으로 썼다.

돈황에서 조금 내려오면 주천(酒泉)이라는 시가 있다. 한(漢) 무제의 부인 위(衛)황후의 조카인 광거병(서기전 140~서기전 117)과 관련이 있는 도시다. 한나라는 매년 흉노에게 막대한 재화를 주고 평화와 샀는데, 표기장군 광거병이 한 무제 원수(元狩) 2년(서기전 121) 흉노 정벌에 나서 이곳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한 무제가 술을 하사하자 광거병은 전 군사와 함께 마신다면서 이 술을 우물에 부어서 나누어 마셨다. 그래서 '술샘'이라는 뜻의 주천(酒泉)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2100년 전 흉노 정벌 사건을 아직도 도시 이름으로 삼고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인들의 역사관을 잘 말해 준다.

이 주천시 근처에 만리장성 서쪽 끝의 한 관문인 가옥관이 있다. 천하제일웅관(天下第一雄關)으로 불리는데 정작 쌓기 시작한 것은 명나라 주원장의 홍무(洪武) 5년(1372)부터이다. 이곳에 있는 장성박

물관에서는 각 시기별 만리장성의 길이를 보여 주는 슬라이드 지도를 상영하는데, 지나라 때 만리장성 동쪽 끝은 평양 부근까지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 만리장성이 북한까지 온 적이 있었는가?'라고 놀리지만 '만리장성 동쪽 끝=북한'은 중국민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식이다.

그 뿌리는 역시 조선총독부로서 일제강점기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가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황해도 수안에서 시작된다"라고 아무런 사료적 근거 없이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해방 후 이른바 국사학계(?)의 태두(泰斗)라는 이병도 서울대 교수가 이를 그대로 추종했고, 현재까지도 국내 강단사학자들이 따르는 바람에 항의 한번 못해 보고 만리장성이 북한까지 늘어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한 것이 대부분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이런 그릇된 역사 인식을 아직까지 한국 학계가 추종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은 2012년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CRS)라는 자료집을 미 상원에 보냈는데, '한사군=북한 지역'을 논리로 북한이 중국사의 영역이었다는 내용의 자료다. 미 상원에서 이 자료를 한국 정부에 보내 반박하라고 했더니 이명박 정권 당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독도를 끝내 그리지 않아서 문제가 된 '동북아역사지도' 제작 측 대표였던 교수 등이 국민세금으로 미 상원까지 가서 '한사군의 남쪽 한계는 황해도 재령강 연안과 강원도 북부'라는 한국 입장을 전달하고 왔다. 지금으로서는 북한 유사시 중국이 황해도~강원도 북부까지 차지하고 동북 4성으로 삼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북한 강역을 중국에 그대로 넘겨준 이런 행위의 배경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일 것이지만 대부분의 보수 언론은 물론 진보 언론까지도 조선총독부 역사관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묵살되고 있는 형편이다. 함석헌 선생이 "깨어 있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말한 것이 비단 1960년대에만 국한되는 상황은 아니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중년의 은밀한 적 남성 갱년기



김동규 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갱년기의 근본적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는 라이디히 세포의 숫자가 감소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뇌기능의 노화다. 정자 생성 및 남성호르몬 합성을 조절하는 내분비기관인 뇌하수체 및 시상하부의 기능 저하가 원인이 되는 것이다.

테스토스테론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영역에 관여한다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역할을 한다. 조절 작용을 하고 골형성·대사 과정·성 기능 유지는 물론, 피부·두발·근육·뼈·대뇌의 기능이나 구조를 유지한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테스토스테론 결핍의 가장 특징적 증상은 성기능 장애다.

그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성욕감퇴, 발기력 저하, 사정 때 극저감 감소, 성적 자극에 대한 민감도 저하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근력저하 및 근육량 감소, 골밀도 저하, 북부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대사적 이상 등의 신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 심리 및 정신적 이상도 유효력 저하, 우울감, 극심한 피로감, 인지 능력 저하 및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혈중 테스토스테론이 결핍되면 동맥경화, 북부 비만, 제2형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심혈관·대사 질환 발생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고, 정상인에 비해서 조기에 사망할 확률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만성 퇴행성 뇌질환, 류머티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도 남성호르몬이 감소하면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의 결핍은 남성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비만, 당뇨, 고혈압, 동맥 경화증과 같은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이나 만성질환에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갱년기 증상의 진단은 크게 증상 설문지 검사와 혈액 검사로 나눌 수 있다. 혈액검사에는 남성호르몬과 관련된 검사, 혈당검사, 혈색소 검사, 고지혈증 검사, 간 기능 검사 등이 있다. 그 외에 전립선 검사(PSA), 골밀도 검사, 척추 X-ray 촬영, 체지방 검사 등을 함께 시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만 여부, 아연 결핍, 과도한 음주, 이노제, 항우울제, 위장약 등의 과다 사용, 기타 환경 호르몬 노출 가능성을 확인한다.

남성 갱년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생활환경 개선이다. 우선 흡연과 음주를 절제하고 남성호르몬 생성이나 대사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피하며 규칙적인 수면 및 운동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서구형 식습관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무 심한 다이어트는 남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으니 균형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테스토스테론 결핍이 장기간 지속됐을 때 일정 기간 내에는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해주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장기화된 기능 및 해부학적 구조에 비가역적 변화가 일어나 치료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갱년기 환자의 10% 정도만 의사의 치료를 받는 현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남성 갱년기를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테스토스테론을 직접 투여하는 장단기 주사제 치료, 경구제, 바르거나 부직하는 경피제 치료, 체내 남성호르몬 생성을 증가시키는 경구약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날로 수명이 늘어가는 100세 시대, 치료를 미루거나 피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기고

꽃밭 퇴비사건



이세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똥բ 주고 싶었지만 냄새가 날 것 같아 아내에게 물었더니 꽃밭에는 퇴비를 주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꽃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고 면박을 주고 퇴비를 많이 갖다 달았어. 아내는 도시에만 살아서 꽃에 대하여 잘 모르는데 괜히 상의해서 번거롭기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아내는 설명 자기 말이 틀렸을지라도 그 정도 요구 하나 들어주지 못한다고 심하게 나무랐다. 그런 아내가 못마땅하여 말도 아닌 소리 말라며 무시해버렸다.

어느 날 아내의 친구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꽃밭에 기여이 퇴비를 많이 줘 아내가 매우 속상해 했다는 것이다. 그제야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렴풋이 느껴졌다. 꽃을 심는 것은 함께 아름다움을 느끼자는 건데 나는 꽃을 잘 키우는 데만 생각이 머물러 있었다. 아내는 꽃밭에 독이 있는 퇴비를 많이 주면 좋지 않다는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말한 것인데,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간섭을 한다고 느꼈던 것이다. 이유나 물어보고 결정해도 되고, 또 퇴비를 했더라도 다시 거두어 들일 수도 있는 일인데...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다. 한때 아내는 내가 벽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젊은 시절

시대 식구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변호만 하느라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안타까워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아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이 내 의무라 되는 듯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열정을 다해 설명했다. 못견디 아내는 "나도 모르는 게 아니니 그냥 들어달라"고 했지만 나는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았다. 아내는 점점 같이 대화하기를 꺼리고 말수가 적어졌다. 아내의 지적을 받으며 교편을 잡는 동안 학생들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대하는 것과 달리 아이들 이야기는 중간에 간섭하지 않고 잘 들었다. 듣다 보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었지만, 점점 아이들이 스스로 잘 찾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내는 나를 무조건 다 이해해 주리라 단정하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도리어 아내가 억지를 쓴다고 생각했다. 밖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아내에게는 마음의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젊은 날 수많은 밤을 이야기로 날을 새우며 아무리 사소한 것도 재미있게 이야

기하던 그녀가 왜 이렇게 나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게 되었는가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진심으로 당신을 존중했다면 퇴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후에도 원상회복 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을 어떤 선입견도 없이 듣겠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 동안 당신의 마음을 너무 몰라서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깊은 감동에 정신을 수습하기 어렵다. 그 수많은 고통을 나의 이런 작은 변화에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다니, 사과를 한 후 친구들에게 말하니 너무 잘했다면서 칭찬하더라고 수줍어한다.

조용히 꽃밭을 다시 파고 퇴비를 걷어내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아내가 미소 짓는다. 꽃들이 서로 다정하게 속삭인다. 나도 아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점점 아내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다시 이야기로 밤을 새우는 날이 찾아왔다. 꽃밭은 이제 아내의 손길이 더욱 곱게 빛나고 있다.

社說

폭염을 기화로 에어컨 설치 폭리 취해서야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집들이 늘고 있다. 특히 신제품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 상당수 서민들은 중고 제품을 선호한다고 한다. 하지만 중고 에어컨 설치비가 제품 가격에 맞먹거나 오히려 비싸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새 에어컨을 구입·설치할 때에는 냉방기 판매 업체가 설치비를 부담한다. 이 경우 냉방기 판매 업체가 미리 설치비를 에어컨 판매가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비용 자체가 소액에 불과해도 ~강원도 북부까지 차지하고 동북 4성으로 삼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북한 강역을 중국에 그대로 넘겨준 이런 행위의 배경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일 것이지만 대부분의 보수 언론은 물론 진보 언론까지도 조선총독부 역사관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묵살되고 있는 형편이다. 함석헌 선생이 "깨어 있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말한 것이 비단 1960년대에만 국한되는 상황은 아니다.

올 여름 중고 매장에서 안방용 벽걸이형 에어컨은 대개 20~30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 이 제품을 사서 설치하려면 제품 값과 비슷한 25만 원의 설치비를 내야 하는 셈이다. 그나마 같은 제품을 설치하더라도 업체에 따라 설치비가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등 제각각이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용과 실제 비용도 큰 차이를 보였다. 에어컨 설치업체의 배정 영업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수요가 폭증하면서 비롯됐다. 신제품이나 중고 제품 할 것 없이 설치 주문이 쇄도하면서 소비자들은 구입 후 수일에서 1주일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일보가 최근 광주 지역 에어컨 설치 업체를 취재한 결과, 중고 '벽걸이·스탠드세트'(안방과 거실에 1대씩 설치하는 형태) 에어컨은 설치비가 무려 40만~45만 원에 달했다. 이 중 벽걸이형이나 스탠드형 하나만을 설치할 경우는 25만~30만 원을 받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새 제품을 사기에 버거운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이 구매하는 중고 에어컨 설치비로 이처럼 폭리를 취해서야 되겠는가. 한여름 대목을 만나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에게 대해 공정거래위 등 당국에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구멍 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최우선으로

한빛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확산하고 있다. 격납용기 내부 철판 부식과 미세 구멍에 이어 원전 안전의 최후 보루인 외벽에서 콘크리트 타설 불량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빈틈이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25년 전 원전 건설 당시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부실시공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한빛 4호기 돔 모형 콘크리트에서 폭 1~21cm, 깊이 18.7cm에 이르는 구멍이 57개소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4호기 돔 모형 콘크리트 내부 철판에서도 120여 곳의 늪스 흔적과 미세 구멍이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항의 시위에 나선 한빛원전 법근민대책위원회는 4호기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밝혀진 콘크리트와 내부 철판 곳곳의 구멍은 1992년 한빛 3·4호기 콘크리트 타설 당시 주민들의 부실시공 문제 제기를 당국과 사업자 측이 묵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1994년 발간한 자료집을 보면 당시 원전 건설 노동자들과 주민들은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하고 부실한 시공, 무자격업체에 의한 시공 등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당시 정부와 안전은 '이상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던 것으로 나온다. 부실 경고음을 당국이 철저히 무시한 채 공사를 완료하면서 결국 안전에 구멍이 뚫리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원전 폐쇄 등 탈원전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탈원전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안전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바도 적지 않다. 한빛원전에 대한 주민 불신에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1~6호기 전체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투명한 검증은 위해 민간 합동 조사단 구성도 고려해 볼 만하다.

無等鼓

지난 2011년 취재차 유럽 도시 탐방에 나선 적이 있다.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대도시는 물론 에딘버러, 리옹, 스트라스부르, 프라이부르크 등 중소도시도 둘러봤다. 그다지 길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이들 도시에 대한 인상은 지금도 깊이 남아 있다. 유럽의 도시는 각기 나름대로 매력

이 있다. 그 도시만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물리적인 공간 위에서 체현돼 비슷 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너무도 달랐다. 유럽의 도시는 자기 나름대로 매력

옛것의 새로움

리는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서 무엇을 유지·보존해야 하고, 또 어떻게 바꿀 것인지 축복과 공영·녹지 등 자연과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을 우선시하는 것도 당연하다. 구도심의 쇠락도 그리 걱정할 것이 없다. 과거부터 오랜 기간 간직해 온 원형을 최대한 보존한 역사·문화 시설로 인해 언제나 시민과 관광객이 북적인다. 도시가 낡은 인물과 그들이 남긴 유산을 마케팅하고,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다면 구도심의 경관·디자인에 어울리게 신축해 이질감 없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 걷는 거리마다 이야기가 있고, 곳곳에 누구나 쉬어 갈 수 있는

스텝터가 있다. 물론 유럽의 도시를 우리의 모델로 삼고 따라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우리의 근대는 일제강점기와 중부되고, 근대건축물 역시 그 당시 일본의 양식으로 지어졌다. 해방 이후 도시가 국가의 경제 성장 도구이자 그 결과물이 되면서 개발 붐과 부동산 투기가 일었고, 그 과정에서 지어진 유사한 디자인의 부실한 단독·연립주택은 보존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 이렇지만 이유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서 무엇을 유지·보존해야 하고, 또 어떻게 바꿀 것인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회 2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